

COVER



청리움 웨딩

자연과 기운이 머무는 명당에서 시작하는 인연

시간을 넘어 기억되는 사랑의 무대, 자연 속 프라이빗 웨딩의 정수

editor CHARLIE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자,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시작이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이 특별한 날을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기길 꿈꾼다. 청리움 웨딩은 바로 그 꿈을 실현하는 장소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프라이빗한 순간, 그리고 명당의 기운이 깃든 공간에서 울리는 서약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길상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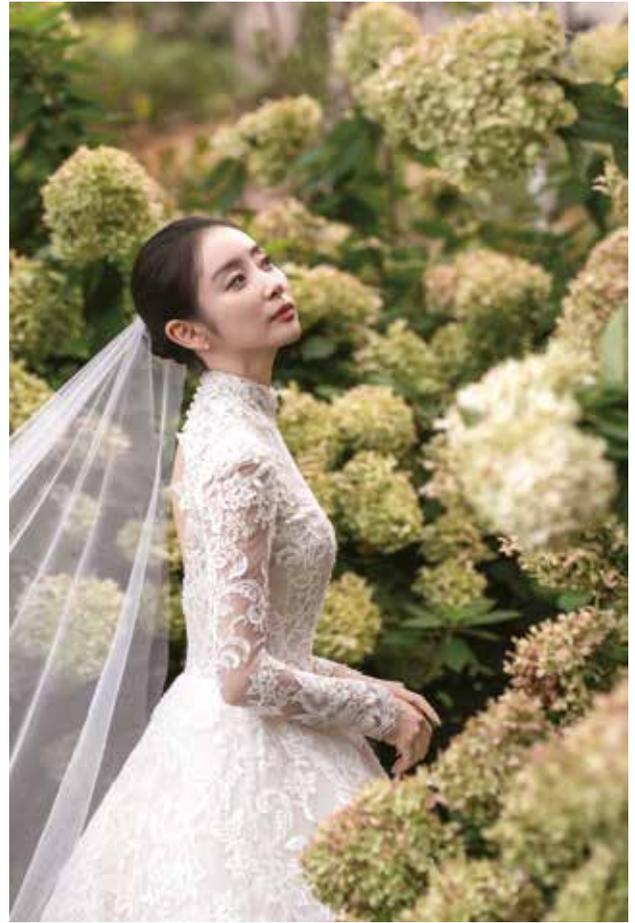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청리움은 하객들에게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고요와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초대받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프라이빗함 속에서 신랑과 신부는 오직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단 하나의 순간을 맞이한다. 계절마다 다른 색을 입는 숲, 탁 트인 하늘, 아기자기한 꽃과 나무들이 별도의 장식 없이도 웨딩 무대를 완성한다. 이곳에서의 예식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지며, 자연 자체가 가장 세련된 데코레이션이 된다.

청리움의 공간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고즈넉한 오하산방에서는 품격 있는 전통 혼례가 가능하고, 400석 규모의 푸른 잔디마당에서는 유럽풍의 감각적인 파티와 낭만적인 예식이 어우러진다. 호수와 숲이 맞닿은 풍경은 신부의 트레인과 신랑의 걸음을 드라마틱하게 비추며, 예식의 순간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촬영 콘셉트를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배경 또한 청리움만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청리움 웨딩의 특별함은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에 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여정,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도 예식의 요소로 반영된다. 플로리스트는 계절과 공간, 커플의 개성을 고려해 아치와 포토존, 테이블 장식을 설계하고, 셰프는 제철 식재료와 커플의 취향을 담아낸 메뉴로 하객 모두의 미각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긴다. 스타일리스트는 신랑·신부의 의상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무드를 아우르는 스타일링을 제안해, 예식이 단순한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채워진 무대로 완성된다.

청리움은 단 몇 시간의 예식이 아닌, 머무는 웨딩을 가능하게 한다. 하루를 넘어 1박 이상의 예식도 가능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머물며 파티와 만찬, 본식까지 이어지는 축제 같은 결혼식을 즐길 수 있다. 청리움 내 연수동은 약 13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랑 신부뿐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예식이 끝난 뒤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밤이 이어지며, 결혼식이 단순한 순간이 아닌 '시간을 함께 나누는 여정'으로 확장된다.



또 하나의 매력은 청리움이 오랜 세월 명당으로 꼽혀온 장소라는 사실이다. 풍수적으로 금계포란형의 산세와 물줄기가 어우러진 터 위에 자리한 청리움은 안정과 번영의 기운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옛사람들이 결혼식의 첫날을 길한 터에서 맞이하고자 했던 전통적 의미처럼, 이곳에서의 예식은 두 사람의 앞날을 길하고 평안하게 열어가는 특별한 시작이 된다. 부귀와 장수, 재복을 상징하는 전통적 상징들이 곳곳에 살아 숨 쉬며, 청리움에서의 결혼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 전체를 축복하는 의식이 된다.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걷는 순간, 사계절의 색을 품은 풍경 속에서 서약을 나누는 순간, 잔디마당 위에서 하객들과 환한 웃음을 나누는 순간... 청리움 웨딩은 각각의 장면을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해 준다. 무엇보다도 '명당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도록 굳건하다'는 전통적 믿음처럼, 청리움에서의 결혼은 두 사람의 앞날에 따스하고 길한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





- Venue : 청리움 @cheongrium
- Director : 웨딩21@wedding21_magazine
- Main snap : 콘스트필름 @kunstfilm_official
- Sub snap : 웨딩21 하우스포토
- DvD main : 웨딩미 @weddingme_official
- Dvd sub : 5mm필름 @5mm_film
- Dress : 소노브라이덜 @bridal_sono
- Suit : 아틀레 @atle_korea
- Hanbok : 서담화 @seodamhwa
- Iphone Snap : 올빛스냅 @olvit_snap
- Hair & Make-up : 정남 @jungnam_wedding @sodam_up @se7en_luck
- Flower : 메리인웨딩 @marryinwedding
- Bouquet : 플라네르 @flaneur_et
- Jewellery : 백작피렌체 @baekjak_by_firenze
- Wedding Cake : 모드에 @modue_
- Wedding shoes : 뭉 @muul

또 하나의 매력은 청리움이 오랜 세월 명당으로 꼽혀온 에서 비롯된다. 청리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전통이 전하는 상징성과 세심한 서비스가 어우러져 그 시작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마련한다. 이곳에서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서정적이고 성스러운 출발이다.





